# 하절기 재해예방과 안전



# 오늘은

• 하절기 재해와 안전

• 전기감전재해 예방과 안전

2=5 のただないた!

# 하절기의 위험

- 장마철이 되면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과 관련된 구조물 붕괴우려가 높음
- 잦은 강우와 높은 습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위험 높음
- 하절기에는 탱크, 맨홀 작업 등에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음
- 하절기에는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

### 하절기 재해

- 사고사망자수는 3개월 평균 사고사망자수보다 낮고,
- 질병재해자수와 질병사망자수는 3개월 평균보다 더 높음
- 평균적으로 장마철 사고재해자가 3개월 평균 재해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음

# 하절기 재해사고

- 맨홀, 탱크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
- 전기기계·기구 등 사용 시 감전사고
- 비탈면 붕괴사고
- 굴착으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
-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
- 작업자의 건강장해

# 하절기 질식재해 사례

- ▶ 상수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맨홀 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산소결 핍으로 2명 부상
- ▶ 식품 제조공장에서 탈염조에 들어갔던 근로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, 구조과정에서 1명 사망
- ➢ 공장 집수조 보수작업을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근로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, 구조과정에서 4명 부상

2=5 のたべななべけけ!

###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방법

- ✓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
  - 작업 위험요소 인지
  -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
  -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등

- √ 출입전 산소. 유해가스 농도 측정
  - 산소 18%이상 23.5%미만
  - 황화수소 10ppm미만
  - 일산화탄소 30ppm미만
  - 탄산가스 1.5%미만
  - 가연성가스 하한치 10%미만

- ✓ 출입 전, 출입 중 충분한 환기 실시
- ✓ 감시인 배치,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, 출입인원 점검
  -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
- ✓ 위급한 재해자 구조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 필히 착용

2=5 のただなないこと!

###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

- ▶ 무단출입금지
- 질식 위험장소는 사망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 및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, 확인합시다

- ▶ 출입전, 출입 중 충분한 환기
-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지기에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킵시다

- 구조자도 구조시 보호구 착용
- 환기팬 가동 불가능 상태이거나, 구조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시다

###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조치

- ▶ 위험요인
- √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무너짐(붕괴)
- √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인접건물,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
- ✓ 현장의 침수로 인한 공사중단 및 물적 손실
- ✓강 등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공사구간에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 유입
- ✓ 복개구조물 개·보수 및 지하구조물 시공 중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 유입으로 현장 침수
- ※ 집중호우(集中豪雨, severe rain storm) : 보통 하루의 강우량이 100mm를 초과하면 집중호우라하고, 통상적으로 하루에 연간 강수량의 8% 이상 내리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

### ➤ 안전대책

- √수변지역,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 시 상황 수시 파악
- ✓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
- ✓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을 편성하여 운영
- ✓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유지
- √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
- √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
- √ 침수된 작업장 복구 후 재투입시 전기기기 점검 후 작업재개(감전예방)

- ▶침수된 현장에서의 안전
  - √ 침수가 된 시설은 점검하고, 재침수 방지를 위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
  - ✓ 침수 이후에는 감전 요소가 있는지 살핀 뒤 접근하도록 한다.
  - ✓복구시에는 안전 여부를 먼저 살핀 뒤 복구를 시작한다.
- √위험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.
- ✓ 전기기기 점검·정비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.
- ✓절연장갑,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.
- ✓복구시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한다.

### 강풍에 따른 무너짐·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

- ▶위험요인
  - ✓기계 기구들의 무너짐(붕괴)·넘어짐 위험
  - ✓ 이동식 크레인 및 항타기·항발기 등의 넘어짐 위험
  - √ 강풍으로 날리는 자재·공구 등에 맞음

- ❖강풍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
- √ 강풍주의보: 육상에서 풍속 1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/s 이상이 예상될 때
- √ 강풍경보: 육상에서 풍속 21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/s 이상이 예상될 때



- ▶ 안전대책
  - ✓ 강풍 시 작업 제한
  - 순간풍속 10m/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·수리·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및 철골작업 중지
  - 순간풍속 15m/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
  - 순간풍속 30m/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
  - ✓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, 안전표지판,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실시
  - ✓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거나,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
  - ✓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망의 설치 여부 확인
  - ✓ 강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 연기

# 감전사고

# ▶ 감전

-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를 때,
 전기적 충격에 의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
 생리적 현상(일명 전격이라고도 함

2号ラのただないた!

- 신체에 발열, 근육수축 동반

# 감전에 의한 주요 현상

▶ 심실세동

전류가 심장부위에 흘러 심장마비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장애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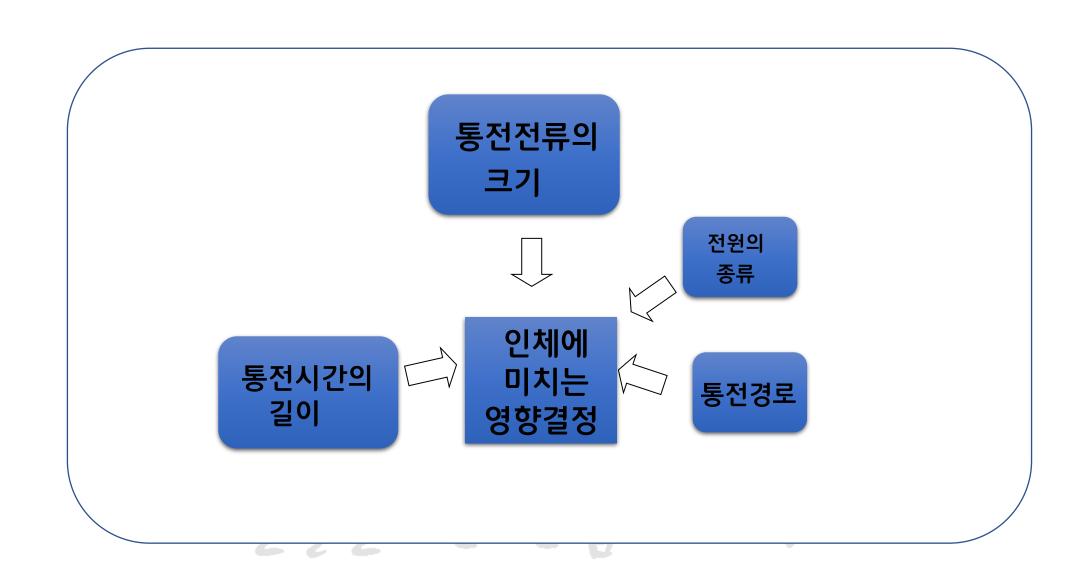
> 호흡정지

전류가 가슴부위로 흘러 흉부 수축으로 인한 질식



- > 전기화상
- 대전류의 고온 아크열에 의해 매우 심한 열상 및 자상 발생
- 저압에서 장시간 감전 시 줄열에 의한 내부 조식 손상으로 사망

# 감전 시 인체에 미치는 주요 요인



## 통전전류의 크기에 따른 증상

1mA 이하: 감지하지 못함

16mA 이하: 성인남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

15/20A: 일반적인 퓨즈/차단기 작동전류

통전 전류의 크기	2mA	5mA	10mA	15mA	50~100mA
	약간 따끔함을 느낄 정도	통전부위 경련 유발	통전 부위 통증 유발	몸 전체 강렬한 경련 초래	사망우려
증 상					

# 감전사고의 발생형태

- ➤ 노출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(직접접촉)
- ➤ 누전에 의한 감전 (간접접촉)
- ➤ 특별고압 충전전로 근접접근 시 감전(비접촉)
- ➤ 낙뢰로 인한 감전(화염,화상)











# 하절기 감전사고 사례

- ▶ 활선 작업등 교체 중 감전
  - 재해개요
     섬유염색 작업장에서 래피드 염색기에 설치된 작업등 교체작업 중 감전



### • 재해 발생원인

- -전등 소켓의 충전부 노출
- -점등(활선)상태에서 전구교체 작업 실시로 인해 손으로
- -유입된 전류가 주변 금속(염색기)에 접촉된 또 다른 신체 일부로 흐르면서 통전 경로 형성
- -전등 회로에 누전차단기 미설치

### • 재해 예방대책

- 작업등 전선 인입부의 고무패킹 및 배선의 손상여부를 전원투입 전에 확인
- 전등 교체 시에는 먼저 전원을 차단 후 교체하고, 교환 후 전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
- 전등 및 전열(콘센트)회로와 같은 임시배선 전로의 전원 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
- 공중 매달기식 작업등은 전구 파손방지를 위해 전구 보호망 설치

2=5 のただないこれ!

## ▶ 휴대용 전동공구 작업 중 감전

#### • 재해개요

비로 인해 옥외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 드릴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손상된 코드에서 누전으로 감전

2号ラの大型ないた!

#### • 재해 발생원인

- -이중절연 구조의 전동공구 미사용
- -코드의 피복손상 여부 미확인
- -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



#### • 재해 예방대책

- 다음의 장소에서 휴대용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사용
  -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(옥외, 지하실 등)
  - 철판,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(탱크나 선박의 내부)
- 위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, 접지극 있는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을 접지
- 사용 전 또는 정기적으로 금속제 외함과 각 선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대지전압 150V이상 300V이하에서 0.2㎞이상을 유지
- 휴대용 전동공구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이중절연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 절연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

### > 누전상태의 조작반 점검 중 감전

#### • 재해개요

폭우가 오자 배수펌프 조작반 내부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, 지하 PIT로 내려가 점검하던 중 조작반에 접촉하여 감전/사망

のようないるりますり

### • 재해 발생원인

- -고장수리 시 정전작업 미실시
- -배수펌프 조작박스 설치 위치 부적절
- -금속제 외함 접지 등 감전방지조치 미실시
- -절연 보호장구 미사용



### • 재해 예방대책

-배·분전반/조작반의 충전부에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(투명아크릴 판등)을 설치

-배·분전반/조작반에는 분기차단기별 회로명 기입으로 오조작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

-차단기의 1, 2차 케이블 접속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캡을 사용하여 보호조치

-고장수리 시, 전원차단 조치 및 배·분전반/조작반에 잠금장치활용 및 꼬리표를 사용하여 작업사항 기재

のケストさりていまり

> 수전설비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

#### • 재해개요

장마전 옥상 바닥 방수공사를 위해 고무호수로 물청소 작업 중, 수전용 변압기의 특별고압(22.9KV) 수전설비 주변에서 몸을 구부렸다가 일어서는 순간, 바닥으로부터 1.8m 높이에 부착된 컷아웃스위치(COS) 하부에 머리가 근접되어 감전/사망

### • 재해 발생원인

- -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
- -수전설비 주변 작업 시 정전작업 실시
- -감시인 미배치

#### • 재해 예방대책

- 특별고압 (22.9KV)의 수전설비에는 충전전로와 충분한 거리를(수평과 수직거리 합 5m 이상) 확보할 수 있는 출입문 또는 울타리 설치하고 유자격자 이외 출입금지
- 울타리 각 방향에는 대형 안전표지(고압, 접근금지 등) 부착
- 특별고압 (22.9KV) 충전전로와 근접 장소에서 작업 시, 정전작업을 하거나 절연 방호구 설치 또는 접근한계거리(30㎝ 이상) 유지
- 작업 중에는 감시인 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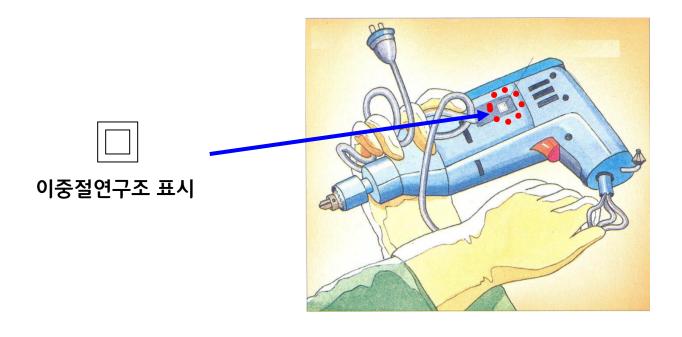
# 감전재해 예방대책

#### ✓설치시의 안전대책

▶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의 노출 금지



▶ 이중절연구조 또는 전지구동 전기기구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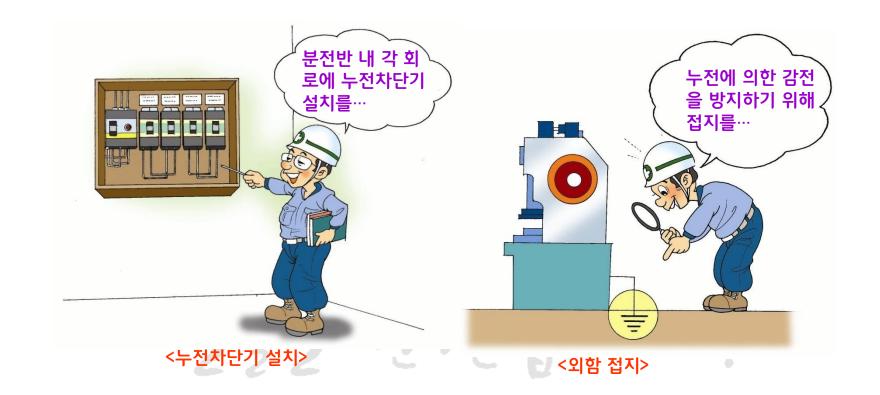


- > 충전부가 확실히 절연되어 있는 배선 및 이동전선 사용
- > 꽂음접속기(콘센트, 플러그 등) 사용시 적합한 전압과 전류용량 확인 후 사용



#### ✓ 누전 시 안전대책

- 재해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.
- 전기기계 기구의 외함을 접지한다.



### ✓ 사용시의 안전대책

▶ 물기 있는 곳에서 전기기기 취급금지



### ▶ 사용전 점검 철저 / 불량 전기기기 사용 금지



#### ✓ 침수시 안전대책

➤ 전선, 기기 등이 물에 잠겼을 경우
접근 금지, 전기전문가 또는 가까운 전력회사에 연락

- ➢ 공장이 침수되었을 경우
  스위치 내려 전기공급 차단 후 전기전문가나 전력회사 연락
- ➤ 물에 잠겼던 전기기기에 대한 조치 마른 천으로 오물과 물기 제거 후, 전문업체나 제조회사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



### 감전재해시 응급처치

➤ 전원의 확인

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재해자가 누전된 기기 및 전선 등에 접촉되어 있는지 확인

➤ 재해자의 상태관찰

재해자의 호흡 및 맥박상태 등을 신속, 정확하게 관찰

▶ 신속한 응급처치

의식 없거나, 호흡, 심장이 정지했을 경우, 출혈이 심한 경우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 등 필요한 응급처치 시행





### ✓ 감전 재해자 구출

➤ 재해자 구조 전에 먼저 전원스위치를 내림 전원스위치를 내린 후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키고 재해자의 상태 확인

#### ➤ 전원 차단방법

절연장갑 끼지 않은 맨손으로 재해자를 만지지 않음 플러그를 뽑거나 렌치 등으로 케이블을 절단하여 전기접촉을 차단

2=5 のただないた!

#### ▶ 전원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조치

- 구조자의 발을 나무박스, 고무판, 플라스틱 매트 등과 같이 건조한 절연물질 위에 올려 놓음

- 재해자를 전기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도구를 이용

-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절연장갑을 사용하여 재해자를 안전하게 끌어당김

2=5 のただないた!

#### ▶ 전원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조치

로프 사용 가능시 재해자와 접촉말고 발과 팔 주위를 로프로 감아 끌어 당김

#### > 전원차단 후 감전위험이 없는 경우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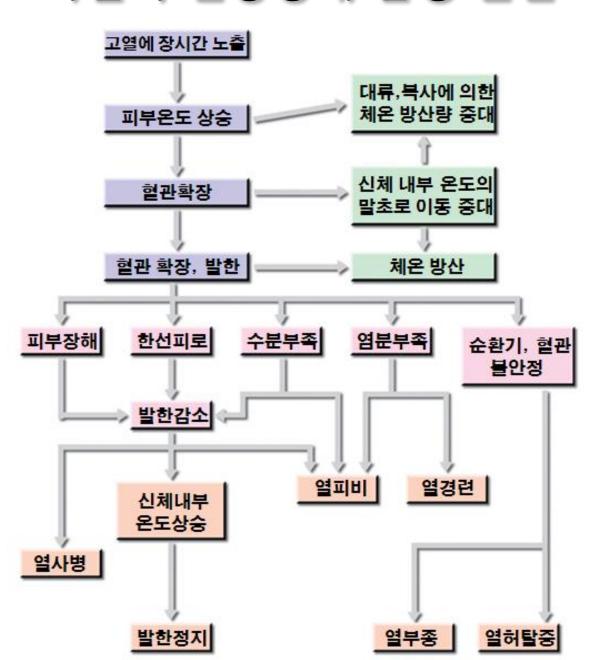
더 이상 감전위험 없고 재해자에게 큰 위험 없어도, 재해자 의식 없으면, 호흡,맥박 확인 후 인공호흡등 시행 하면서 119로 연락

# 하절기 주요 질병

- ✓ 열피로
  - (일사병)
- √ 열경련
- √ 열사병
- √ 냉방병

2=5 のただないた!

# 하절기 건강장해 발생 원인



# ➤ 열피로(일사병)

원인	-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, 특히 초보 근로자, 고령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함 - 기온과 습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 발생함
증상	<ul> <li>- 경증: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한 두 차례 어지러운 느낌</li> <li>- 실신환자(열실신): 무력감, 불안 및 초조감, 구역 등</li> <li>-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경우: 2<sup>2</sup> 3분이내에 회복,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1<sup>2</sup> 2</li> <li>시간이 걸림</li> </ul>

# - 충분한 휴식 염분 보충 예방법 발생시 - 경증환자 : 눕히거나 머리를 낮게 눕힘 - 실신환자 : 시원한 곳에 옮겨 $1^{\sim}$ 2시간 쉬게 하면서 수분 보충, 강심제, 포도당 주사, 0.1% 식염수 공급

のアスナック へつことし

#### ▶ 열경련

-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에 자주 발생 원인 - 지나친 발한(發汗)에 의한 탈수와 염분소실이 원인 - 작업시 많이 사용한 근육의 유통성 경련이 오는 것이 특징 증상 - 현기증, 이명(耳鳴),두통, 구역,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남

-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방출, 수분 및 0.1%의 식염수 보충 발생시 - 충분한 휴식 수분 및 염분 보충 예방법

# ▶ 열사병

원인	<ul><li>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</li><li>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</li></ul>
증상	<ul> <li>-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, 특히 발한기전 장해</li> <li>- 체온이 41<sup>~</sup> 43<sup>°</sup>c까지 급격하게 상승</li> <li>- 정신착란, 의식결여, 경련, 혼수상태, 피부 건조</li> <li>- 치료조치가 없을시 100% 사망,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체온43<sup>°</sup>c</li> <li>이상인 때에는 약 80%, 43<sup>°</sup>c 이하인 때에는 약 40%의 높은 사망률을 보임</li> </ul>

- 체온을 낮춤

발생 시 - 얼음물사용

- 찬물로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(증발 냉각)

- 충분한 휴식

예방법

- 장시간 햇빛 노출 피함

- 충분한 수분 섭취

## ▶ 냉방병

	- 과도한 실내외 기온차이
원인	- 레지오넬라균
	- 밀폐건물 증후군
증상	가벼운 감기, 몸살, 권태감

2=5 のただなないた!

실내외 온도차 5~6℃ 유지 예방법 하루 3번 30분씩 환기 냉방기 1~2주마다 청소

# 그 외 하절기 질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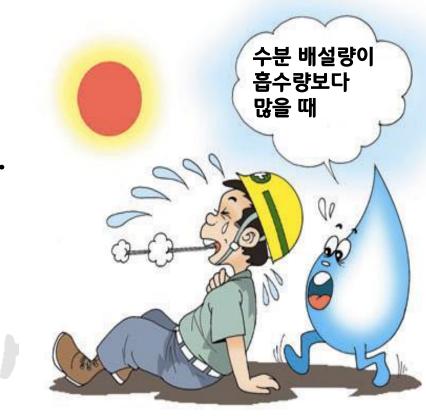
2=5 のただなないた!

#### **탈수증**

- √ 증상
- 탈수증이 생기면 무기력 해지며 심한 경우 발열과 경련이 발생

#### √ 예방대책

-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 탈수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보통 하루 8잔~16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.
-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.



## > 식중독 – 살모렐라균 중독

#### √ 증상

- 오염된 우유, 달걀, 닭, 육류를 먹은 뒤 12~72시간 후에 설사, 발열, 복통이 발생
- 증상은 4~7일간 지속되다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회복

#### √ 예방대책

- 열에 약하므로 잘 조리 된 음식을 먹는다.
- 식품을 취급하기 전 반드시 손을 닦는다.



## > 식중독 - 장염 비브리오균 중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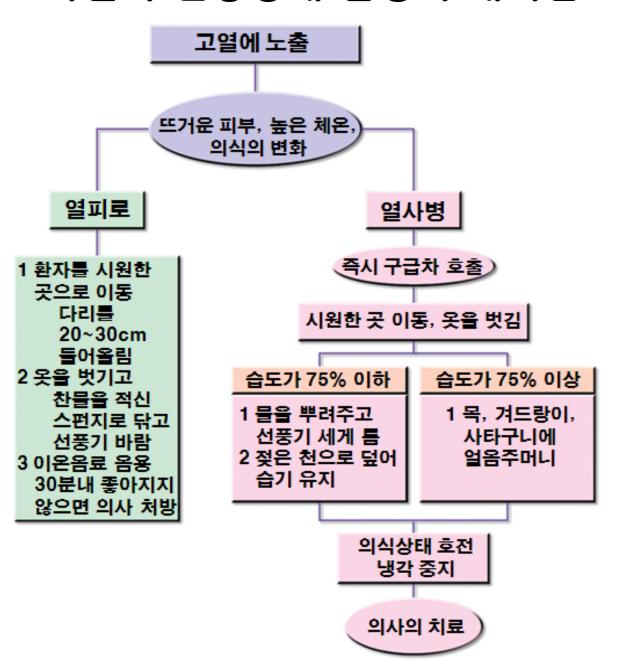
#### √ 증상

- 비브리오균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은 후 1~2일 후 갑자기 오한과 발열, 구토와 설사 증상 발생
- 피부 감염의 경우는 약 12시간 후에 상처 부위에 부종과 홍반이 발생하고 수포성 괴사증상 이 발생

#### ✓ 예방대책

- 어패류는 가급적 조리하여 섭취한다.
- 고령의 간질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어패류 생식을 금한다.

#### 하절기 건강장해 발생시 대처법



## 하절기 사업장에서 확인 사항

- ✓ 사업장 내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
- ✓ 사업장 내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,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
- ✓ 사업장 내 주위 배수로·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
- √우기시 사업장 내 감전에 대비한 배전반, 분전반, 이동전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
- ✓우기시 사업장 내 낙뢰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및 강풍에 의한 떨어짐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확인
- ✔ 사업장내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회사와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

#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 입니다.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

2=5 のただないた!